

2016 세법개정안 확정

주택 임대수익 비과세·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年 2000만원 이하)

수소차 구매시 최대 400만원 할인·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초·중·고 체험학습비 세액공제...연봉 7천만원 이상 세혜택 줄어

28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내년 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 포인트 상향조정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

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0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감소하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 시작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를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중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8로 조정된다.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도 확대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자본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코스닥은 종목별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역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는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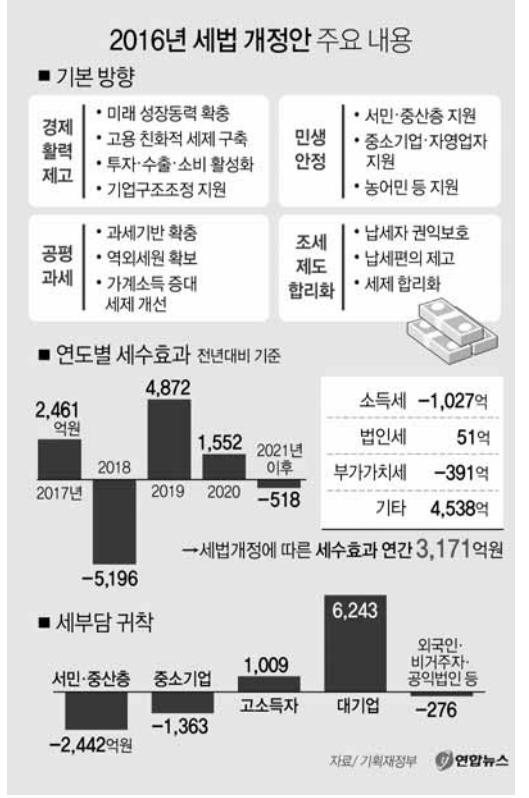
있다.

배당소득 중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에 인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오비맥주, 광주시에 인재육성장학금 1500만원



오비맥주는 2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에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환 광주 공장장,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원 광주시자치행정국장. (오비맥주 제공)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28일 대표 브랜드 ‘카스’와 ‘프리미어 OB’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빛고를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김성환 광주 공장장을 포함해 오비맥주와 광주시장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광주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4번째 이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장학금은 광주 지역에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 수익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인재들의 생활비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억 8500만원이 광주시에 전달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1.10 (-3.95)
- ↓ 금리 (국고채 3년) 1.20% (-0.02)
- ↑ 코스닥 703.78 (+2.69)
- ↓ 환율 (USD) 1124.40원 (-9.80)

새로워진 ‘앞새주’ 출고가 인상

보해, 다음달 8일부터 병당 54원 오른 1017원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가 앞새주의 출고가격을 병당 5.6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새주 리뉴얼 제품의 본격적인 유통과 함께 8월 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가격 조정은 보해양조주의 소주 전제품에 해당되며, 대표 제품인 앞새주(360ml)의 출고가격은 기존 962.9원에서 1,016.9원으로 변경된다.

보해양조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소주 가격 인상 대열 속에서 어려운 소비자 경제 여건을 감안, 출고가격 동결을 고수해 왔지만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소주 공병 수수료 인상 등 계속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만 4년 만에 주류 업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앞새주 리뉴얼을 통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보다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성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해양조주 관계자는 “다사의 소주 가격 인상 이후, 7개월 동안 좋은 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했지만 원가상승 요인이 누적 가중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헤아려 소비자 곁에서 오래 사랑받는 앞새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건설사 시공능력 호반 13위·금호 15위·중흥 33위

전국 ‘TOP 100’ 광주·전남 15곳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797개 가운데 15개사가 올해 전국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28일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별 토건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반건설(13위·전남)과 금호산업(15위·전남), 중흥건설(33위·전남), 우미건설(36위·전남), 라인건설(40위·전남), 중흥토건(42위·전남) 등 6개 업체가 50위권 이내에 포진했다.

이어, 제일건설(56위·전남), 서령개발(71위·광주), 금광기업(73위·전남), 대광건설(82위·광주), 모이종합건설(86위·광주), 영무토건(93위·전남), 해립건설(96위·광주), 보광종합건설(97위·광주), 남양건설(98위·전남) 등 9개사가 시공능력평가 순위 51~10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호반건설은 올해 평가액 2조329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남 건설업체 중 1위를 수성했다. 금호산업은 1조63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중흥건설은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계단을 상승했으며 계열사인 중흥토건 역시 6481억원을 기록 전년대보다 5계단을 뛰어올랐다. 이어 라인건설도 6889억원으로 무려 15계단 상승하며 50위권 안에 포진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기술혁신개발 130억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 13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 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산업인 녹색제조와 첨단융합 등 12개 전략분야 140개 전략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지원규모는 130억원으로 최대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65%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술혁신형기업이나 벤처기업 가운데 전략제품을 기술개발하려는 기업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